

여수 출신 문지영양

제네바 국제콩쿠르 피아노 1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 재학 중인 여수 출신 문지영(19)양이 지난 2일 막을 내린 '제69회 제네바 국제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문 1위를 차지했다.

3일 한예종에 따르면 1945년부터 매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 콩쿠르는 마르타 아르베리치, 프리드리히 굴다, 마우리치오 폴리니 등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배출한 권위 있는 대회다. 한국인으로는 1971년 정명화씨가 첼로 부문 1위를 했다. 피아노 부문에서 한국인이 1위를 한 것은 문 양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 피아노 부문 최연소 참가자인 문 양은 이번엔 청중상과 특별상까지 받아 3관왕에 올랐다.

문 양은 이번 우승으로 스위스 프로 무지카 제네바 콘서트 에이전시에서 2년간 후원을 받고, 유럽을 비롯한 북미, 아시아에서 연주 기회도 얻게 됐다. 문 양은 한국 예술영재교육원을 거쳐 올해 한예종 음악원에 수석 입학했다. 현재 피아니스트 김대진 교수를 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인철·김경희 작가

국제PEN 광주문학상

정태현 '올해의 작품상'

제11회 국제PEN 광주문학상에 오인철 작가(조선대 영어교육과 명예교수·왼쪽)와 김경희 시인(서구문화원 사무국장·오른쪽)이, 제1회 국제PEN 올해의 작품상에 정태현 수필가(동신고 교사)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각각 '산 넘어 병학교', '푸른 계단', '호박꽃'.

국제PEN광주광역시위원회(회장 서용좌)는 최근 심사를 갖고 지역문학의 발전과 창작 의욕 고취에 이바지한 오인철씨 등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인이자 극작가인 오인철 씨는 한국드라마학회 창립회원 및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희곡 분야 발전에 기여한 평가를 받았다. 김경희 시인은 광주문협 부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광주전남여성문학인회 '시누대' 회장을 맡고 있다. 정태현 수필가는 광주문학상, 에세이스트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대표에세이문화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상식은 12월 오후 5시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 문의 062-681-4174. /박성천기자 skypark@

이국 땅 老시인에게 '5월 광주'는 진행형

재일시인 김시중 '광주시편' 한국어판 나와

'1980년 5월' 소식 듣고 3년간 21편 작성 일본판 31년만에 5·18 기념재단서 출간 함경도 출생... 1942년 광주사범학교 입학



'바다 건너 팔짱을 끼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던' 시인에게 '시'는 말로 못다할 분노의 표현이었고, 무력감의 표출이었다. 1942년 광주사범학교에 입학, 소년 시절을 광주에서 보냈던 시인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던 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다.

1949년부터 일본에 머물던 시인은 1980년 그날 이후 3년간 21편의 시를 썼고 1983년 '광주시편(光州詩片)'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출간했다. 당시 시집 후기에서 시인은 "나는 있으나 마나한 나의 말에 상복을 입었다. 그리고 31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우리는 재일시인 김시중(85)의 '광주시편'(푸른역사 간)을 한국어로 읽을 수 있게 됐다. 5·18기념재단 기념 사업 일환으로 최근 출간된 '광주시편'에는 광주 연작시 21편이 담겼다.

노시인의 삶은 격동의 현대사와 달아 있다. 1929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태어난 시인은 광주사범 재학중 맞이한 해방 공간에서 사회주의 운동에 관심을 기울였고, 1948년 제주 4·3항쟁에 적극 가담했다. 일본으로 밀항한 후 지금까지 오사카 조선인 거주지에 살며 일본어로 시를 쓰고 있다.

1986년 수필집 '재일의 틈에서'로 제40회 마이니치 출판문화상을 수상한 그는 시집 '원야의 시'(1992)로 오구마 히데오 상을, '잃어버린 계절'로 제41회 다카미 준상을 수상했다.

1980년 5월 20일, 일본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광주 소식을 들으며 시인은 시를 써내려갔다. "거기에는 언제나 내가 없다/ 있어도 상관없을 만큼/ 주위는 나를 감싸고 평온하다/ 일은 언제나 내가 없을 때 터지고/ 나는 나 자신이어야 할 때를 그저 헛되이 보내고 만 있다"(바래지는 시간속) 중)고 적었다.

시인은 "나는 잊지 않았다/ 세상이 있다는 해도/



나는, 나로부터는 결코 잊지 않게 하겠다"(서시)고 마음을 다잡고, 조국을 위해 온 몸을 던졌던 한 사내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몸들의 지로 바꾼 남자가 죽었다/ 육체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요구를 살았기 때문이다(종락)/ 광주는 요구이고/ 거절이고/ 회생이다."("입 다른 말-박관현에게)라고 노래했다.

시인은 또 광주가 잊혀지는 데 대한 안타까움도 담았다. 그는 '명복을 빌지 말라'는 시에서 "날이 지나도 꽃만 놓여 있다면/ 애도는 이제 그저 꽃잎 뿐이다(중략)/ 평온함만이 질서라면/ 질서는 이제 한낱 위축일 뿐이다"라고 적었다.

번역 작업을 맡은 전남대 일본과 김정래 교수는 울진 오사카에서 노시인을 만났다. 규슈의 고구마 소주를 몇잔 마시던 시인은 도청에서 마지막 밤을 함께했던 노동자들이 대학생들에게 "너희는 살아남아 지금 상황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너희들은 살아 남아야 해"라고 했다더라는 말을 하다 목이 메어 눈물 지었다. 30년 넘는 세월이 이국의 시인에게 여전히 현재형이었던 셈이다. 노시인은 '한국어판 간행에 부치는 글'에 근래 일본과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시집은 지리만 지키고 앉아 시대적인 역할을 좌시하는 일은 두번 다시 없으리라는 소박한 울림"이라고 적었다.

김 교수는 역자 후기에서 "그는 시인이자 사상이고, 철학자이며 운동가로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온 이 시대의 경계인"이라고 말했다.

시집에는 일본어 원시와 초판에 실렸던 일본 평론가 마키 타쿠의 해설, 김정래 교수의 역자 후기, 자세한 연보를 함께 실었다. 표지 그림은 일본 판화가 도미야마 다에코의 작품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알립니다

한국문단의 새 이름, 당신이 주인공

2015 광주일보 신춘문예 15일까지 접수합니다

광주일보사가 한국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를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돼 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학정신이 살아있는 작가 지방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시 :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 마감 : 2014년 12월 15일(15일자 소인유효)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501-710 광주시 동구 급남로 238 무등빌딩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문의 062-220-0624)

■ 기타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겉봉투에 붉은 글씨로 신춘문예 응모와 응모분야를 기입하고

원고 낱장에 필명·전화번호·주소·e메일주소를 함께 보내주시시오.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품의 표절일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당선작은 2015년 1월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합니다.

光州日報社

광주비엔날레재단, 디자인비엔날레 손 댈듯

혁신위 제안 "시와 협의 예정"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광주시의 위탁사업인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3일 열린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에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 광주시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위원들은 재단의 가장 시급

한 문제로 제시된 경영 효율화를 위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재단 재정과 내실을 다지고, 효율화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재단이 순수 미술 행사인 광주비엔날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바라는다는 의견을 내었다"고 덧붙였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 2005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5차례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위탁 받아 진행해왔다. /김경민기자kiki@kwangju.co.kr

전남초등교원합창단 정기공연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작곡가 이수인 초대

지난 2001년 전남초등음악연구회의 제안으로 창단한 전남초등교원합창단은 지금까지 정기연주회와 전남초등교원음악제에 참여하며 실력을 쌓아왔다.

전남초등교원합창단(단장 김남삼) 14회 정기연주회가 5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특히 가곡 '별', '그리움', '석굴암', 동요 '알으로' '동글게 동글게' 등을 만든 이수인 작곡가(파랑새창작동요회 회장·사진)를 초청해 그의 음악을 선보



이는 뜻깊은 무대로 꾸며진다.

레퍼토리는 혼성합창 '내 맘의 강물', '고향의 노래', '그리움', '감자'와 여성합창곡으로 '개여울' '샘물이 흐

자서', '어린이 나라' 등이다. 또 테너 정성룡과 소프라노 박신애가 '사랑의 노래'를 선사한다. 지휘봉은 성낙경·이미란씨가 잡으며 피아노 반주는 한수향·김우정씨가 맡는다. KWIC여성합창단(지휘 박영철·반주 임희남)이 특별출연한다. 전석 초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